현불 논단

양극화 시대, 中道를 생각한다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풍요 누리면서도 양극화 심각해
사회 분야 전반 걸쳐 갈등 심화

대기업 입사 평균 연봉 공개 등
정부 통계도 양극화 요소 제공
대기업 취업자 상위 10% 이내
상위 아닌 중간에 초점 맞춰야

1등 지상주의, 이젠 놓아야 돼
양극단 떠난 '中道'를 주목해야

세상이 점점 양극화 되어가는 것 같다. 경제가 발전하며 어느 때보다 넘치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군사독재를 넘어 민주화의 시대로 접어든지 적지않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균형있는 중도의 시각과 입장보다 강경파들이 점점 세력을 키워가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세대 간 갈등도 만만치 않고 전에 없던 새로운 대립과 투쟁의 양상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표출되고 있다.

정부의 통계발표도 이런 양극화와 사회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언제부터라고 특정할 수 없지만 우리사회는 1등 지상주의에 몰입되어 왔다. 대학시험을 보아도 항상 최상위대학의 합격점수를 우선으로 하고, 수많은 취업생이 있음에도 일부 대기업 취업자의 임금을 기준선으로 발표하곤 한다. 실제로 최상위 대학의 입학자나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의 비율은 많이 잡아도 10% 이내의 한 자리 숫자를 벗어나지 못한다.

만약 우리 사회가 그 최상위를 기준으로 삼게 되면 나머지 90% 이상의 사람들은 패배자이자 미달자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차라리 대학 입학생 전체의 평균 점수나 그 해 취업생의 평균 임금을 사회적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나아갈 방향을 정립할 수 있을 텐데, 늘 우리의 통계는 최상층에 기준을 두곤 한다. 중간점을 기준으로 두게 되면 그 이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안도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부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얼마간의 노력으로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상위를 기준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가능성을 박탈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중간을 기준으로 하자면 어떤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중간을 바라보고 살면 되겠냐"며 힐난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위'는 지금의 우리가 이룩한 현실에서 그리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현재 한국의 경제수준과 소비수준은 '세계 최상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가만히 찬찬히 살펴보시라. 지금 우리만큼 물질적 풍요와 해외여행 등의 여가와 안전한 치안환경을 누리는 나라가 몇이나 있는지. 맹목적이고 광적으로 상향을 지향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현실을 바로보고 내면의 자신을 성찰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불교 수행의 기본정신은 중도(中道)이다. 양극단을 떠난 균형 있고 조화를 이룬 길이 중도에 있기 때문이다. 불교 초기 가르침인 '8정도'는 중도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중도가 바로 바른 길, 정도(正道)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중도사상에 대한 깊은 통찰과 현실인식이 가장 좋은 해답이 될 것이다. 인간의 탐욕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욱 갈증과 고통이 심화될 뿐 진정한 행복은 만족함에서 오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가의 중요통계와 미래에의 방향 설정도 더 이상 최상위를 기준으로 하고 성장만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물질적 빈곤이 해결된 상태에서 균형있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중도와 중립의 크기를 키우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는 빈곤과 독재에 시달리던 과거의 관념적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기를 바로 보고 세상을 바로 보는 중도를 지키려는 노력이 개인의 삶과 세상을 보다 균형 있고 행복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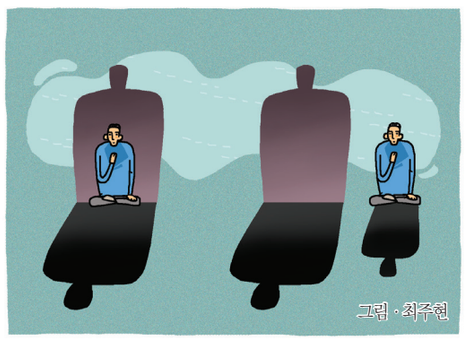
불평불만은 에너지 낭비

손가락으로 남을 가리킬 때 네 개의 손가락은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은 비건설적이며 나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나의 생산적인 에너지 혹은 평화스런 에너지를 빼앗기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탓하기보다 남을 탓하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불평불만을 함으로써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남에게 불평을 늘어놓아보았자, 별 소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사에 자신 없는 사람으로, 만족을 모르는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쁜 것은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합니다. 에머슨은 "불평불만은 자기 신뢰심의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도, 회사에서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자신이 가난한 것도 남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이 세상은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자신의 환경에 대해 불평불만을 하려 들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그림 · 최주현

임제 선사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인공으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주인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평불만하는 그 마음에는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불평불만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누구에게 불평불만을 합니까?

우리들은 어느 누구에게 지배를 받을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운명과 환경은 어디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불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치려고 애쓴다면 해결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할 뿐 행동으로 옮기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불만에 가득 차서 마지못해 할 것인지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대할 때마다 긍정의 시선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보세요. 이럴 때 우리는 늘 생동감 넘치고 충만한 삶,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열정적인 삶은 의식을 깨우고 몸도 깨웁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가 답하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9월 10일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30km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있다. 8월 3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로 첫 발을 디딘 오체투지는 국회 정문까지 10일간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

불교계는 조계종을 중심으로 지난 2009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는 모든 생명은 존귀하고 평등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10여 년의 노력 끝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동의는 이뤄진 상황이다. 지난 6월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내에 10만명 동의'를 얻은 청원을 국회에서 심사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여론 조사에서는 시민 88.5%가 차별금지법 법제화를 찬성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장혜영, 이상민, 박주민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법사위 문턱에 멈춰있는 상황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더딘 이유는 명확하다. 일부 개신교 단체들이 '성적 지향이 정상 가족을 해체한다'면서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이미 차별금지법은 17~19대 국회에서 6번이나 입법 발의됐지만, 개신교 단체들의 집요한 방해공작으로 입법이 좌절됐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이뤄졌고, 그 열망도 어느 때보다 높다. 몇몇 개신교 단체들의 몽니는 시대착오적인 망령된 행동일 뿐이다. 이를 국회가 수용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권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다. 평등사회를 위한 불교계와 국민들의 목소리에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될 때이다.

재한 네팔 불자포교 '비상'

우르겐 스님이 네팔로 돌아간다. 지난해 7월 뇌출혈로 쓰러진 후 1년간 투병 끝에 귀향을 결정했다. 생사를 넘나든 수술과 지속적인 재활에도 스님은 마비된 신체를 회복하지 못했고 말을 잃었다. 스님을 떠나보내는 이들의 마음이 더없이 슬프고 먹먹한 이유다.

우르겐 스님은 2006년 한국에 온 뒤 15년간 재한네팔인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든든한 지원자로 살아왔다. 동두천에 위치한 네팔법당 용수사는 네팔 불자들의 신행공간으로 운영되면서, 위기에 처한 네팔인들을 보듬는 의지처로 역할했다. 일자리를 잃고 거주지를 구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쉼터를 제공했으며, 마음이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는 신심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돼줬다. 모두 우르겐 스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마지막 만남에서 스님은 자유롭지 않은 입을 힘겹게 움직여 감사인사를 전했다. 마지막 작별인사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스님을 바라보는 모두의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또하나 있다.

바로 스님의 부재로 인한 단절의 문제다. 스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네팔인들을 위한 사실상의 유일했던 소통창구였던 만큼, 스님이 떠난 공백은 대단히 클 것이다. 재한 네팔 불자들과 한국불교계와의 연결고리도 어떻게 변화할지 미지수다. 스님이 쓰러진 후 파상 스님과 서울 텍첸사 주지 쿤상 스님이 최선을 다해 빈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15년간 쌓인 우르겐 스님의 활동 노하우는 사실상 단절될 것으로 보인다.

우르겐 스님의 병마로 발생한 갑작스런 공백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고민을 안긴다. 한 사람의 원력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난제이기 때문이다. 우르겐 스님의 출국이 불교계 이주민활동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화의 계기를 던져주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5~6 |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